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서정희(군산대) · 김교성(중앙대) · 백승호(카톨릭대) · 이승윤(이화여자대학교)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은 특별히 새로운 것도 아니다. 250년 전 토마스 페인(Thomas Payne, 1737~1809)이 주장한 '복지기금'에서 출발했다는 주장도 있고, 500년 전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478 ~ 1535)의 '유토피아' (Utopia, 1516)라는 책에서 기원을 찾기도 한다(서정희, 2017; van Parijs, 1995). 서구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된 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였다. 네덜란드 루벵대학의 '샤를푸르에 그룹'(Charles Fourier Collective)이 1986년에 '기본소득'(L'allocation Universelle; Basic Income)이라는 논문을 출간하였고, 같은 해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uropean Network)가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Raventós, 2016: 37). 이 조직은 2004년부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로 발전하여 지금까지 전 세계 기본소득 논의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긴 역사 속에서 기본소득은 '사회배당'(National, Teritorial or Social Dividend),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시민소득'(Citizen's Income), '보편적 보조금'(Universal Grant),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또는 '데모그란트'(Demogrant), '연간 보장소득'(Guaranteed Annual Income), '국가 보너스'(State Bonus)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다(백승호, 2010; van Parijs, 2010).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세 시기로 구분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 번째 시기는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시기로서 2000년대 초반이었다(윤정향, 2002; 성은미, 2003; 윤도현, 2003). 당시의 기본소득 제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확대되기 시작

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수준이었다. 당시의 아이디어는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하나의 몽상가적 제안 정도로 취급되었다. 그 이후 2000년대 중후반까지 기본소득 관련된 논문들이 간헐적으로 발표되었다(이명현, 2006; 2007; 박홍규, 2008 등).

두 번째 시기는 2010년 전 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성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2009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강남훈·곽노완·이수봉, 2009)와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기점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Real Utopia Project¹⁾의 일환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확산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Redesigning Distribution'(Ackerman, Alstott, and van Parijs, 2006)이 '분배의 재구성'(너른복지모임, 2010)으로 번역되었다. 이 시기의 다른 특성은 주로 경제학, 여성학, 철학 분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며, 사회복지학계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서정희·조광자, 2008; 김교성, 2009; 백승호, 2010 등).

제1기와 제2기에 걸친 기본소득의 학술적 논의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에 대한 소개와 도덕적·철학적 원칙에 대한 논의(강남훈·곽노완·이수봉, 2009; 곽노완, 2007; 2009; 라이터, 2008; 성은미, 2002; 윤정향, 2002; 최광은, 2010; 권정임, 2011, 심광현, 2015), 기본소득과 타 제도의 비교(서정희·조광자, 2008; 이명현, 2006; 2007; 김병인, 2016), 소득 재분배와 같은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강남훈, 2009; 2010; 김교성, 2009; 안현효, 2010; 백승호, 2010; 김혜연, 2014; 윤자영, 2016),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제안(강남훈, 2010)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근로동기, 인플레이션 문제 등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들도 일부 소개되었지만(강남훈·곽노완·이수봉, 2009; 강남훈, 2010), 이는 기본소득 반대 논리들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의 성격이 컸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은 전개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중심적 급진 좌파의 입장에서 일부 이념적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기본소득이 '탈노동' 혹은 노동거부의 관점에서 노동과 연계되지 않아 노동해방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였다(박석삼, 2010).

세 번째 시기는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찬반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 논쟁의 확산은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1) Real Utopia Project는 1991년 미국의 위스콘신대학교의 A. E. Heaven Center의 후원 하에 급진적 사회변혁을 위한 광범위한 제안과 모델들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양한 해방적 비전들에 대한 원칙과 타당성을 규범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전들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설계 방안을 결합하고자 하였다.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영국 런던의 Verso 출판사에서 Real Utopia Project Series로 출간되었다.